

‘홈케어도 AI 시대’... K뷰티, 디바이스 시장 경쟁 본격화

아모레퍼시픽, ‘테라피 3S’ 공개
달바, ‘올세라 더블 샷’ 홈뷰티 진출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흥행

국내 뷰티 기업들이 뷰티테크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스킨케어법을 개발하는 등 ‘뷰티 디바이스’ 경쟁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1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대표 뷰티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뷰티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신제품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기기에는 인공지능 피부 분석 및 관리 솔루션 등 전용 서비스도 적용된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스킨 라이트 테라피 III’에는 전기근육자극(EMS) 기능과 갈바닉 기능이 집약됐다. 아모레퍼시픽이 4년간 개발한 트리플 스킨 시너지 기술은 스킨케어 흡수를 돕고 피부 톤, 탄력 등에 효능을 갖췄다. 빛·열·이온·운동 에너지 등 4가지 물리학적 요소를 활용해 종합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자회사 퍼시픽테크를



‘메이크온’의 브랜드 대표 제품인 ‘스킨 라이트 테라피 III’

/아모레퍼시픽

운영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퍼시픽테크를 통해 미용기기 유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퍼시픽테크는 국내 여러 미용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퍼시픽테크 매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9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23년 매출 1000만원에서 190% 늘었다.

차세대 K뷰티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디브랜드 달바도 뷰티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달바는 지난해 연간 매출 3090억원, 영업이익 598억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달바의 올해 목표 매출은 4400억원이며 현재 코스피 시장 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바는 뷰티 기기 신사업을 성장기반으로 확보했다. 달바는 지난해 9월 말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 샷’을 처음 공개했다.

이 신제품은 국내 최초 두 개의 헤드를 하나의 기기에 설계한 올인원 형태의 기기다. 더블 샷으로 사용 시간은 두 배로 줄이고, 관리 효과도 두 배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달바는 특히 기술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 쉽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그니처 올세라

더블 샷은 네이버 라이브 마켓에서 출시 3일 만에 약 5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소비자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뷰티 디바이스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고도화뿐 아니라 화장품 병용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각각 3000억원을 넘기며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에이피알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판매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핵심 제품인 ‘부스터 프로’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후속 제품인 ‘올트라톤 40.68’, ‘하이 포커스 샷’, ‘부스터 프로 미니’ 등의 신규 판매에 나섰다. 뷰티 디바이스를 통해 에이피알 인지도가 제고된 만큼, 회사는 자사 화장품에 대한 소비로 매출 개선이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에이피알 측은 “뷰티테크는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보니, 각국의 규제도 까다롭고 시장 상황도 다르다”며 “현지 맞춤형 화장품, 각국 트렌드에 발맞춘 스킨케어법 등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셀트리온

셀트리온

美 직접판매 강화나서 ‘스테키마’ 시장 선점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발매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오리지널 제품의 도매 가격에서 85% 할인된 ‘낮은 도매 가격’으로 출시했다.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리베이트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등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법인을 통해 스테키마 직접판매 영업도 펼친다. 기존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등을 판매하며 쌓아온 유통망을 활용해 처방 전문의, 환우회 등의 의료 현장 관계자들을 공략한다.

특히 환자한테 최적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내성이 생길 때 치료제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의사 입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제품군은 처방 선택권과 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해 준다.

/이청하 기자

美 C2N 혈액진단 기술에 150억 투입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C2N, R&D·수탁 리딩 기업성장 기대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벤처투자와 함께 설립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C2N 다이그노스틱스(이하 C2N)’에 1000만 달러(145억원)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C2N는 혈액내 매우 적게 존재하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이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개발하였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삼성물산은 13일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C2N 다이그노스틱스에 1000만 달러(약 145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입증한 바 있다. 바이오마커란 질병의 진단과 약물의 효능 측정에 사용되는 체내 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을 뜻한다.

C2N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안전하게 아밀로이드 베타 등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여러 단백질의

양을 정밀 측정하는 것이 강점이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외에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검사 또는 뇌척수액 검사가 사용되어 왔는데 혈액검사가 이중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성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2N의 혈액검사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를 적시에 처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C2N는 자사의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서비스를 올해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라이프 사이언스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C2N는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수탁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회사”라며 “삼성물산은 이번 펀드투자를 통해 해당분야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2N 대표 조엘 브라운슈타인은 “C2N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단백질 분석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C2N의 서비스를 미국 전역뿐 아니라 해외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2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자운용중이다. ‘미래 바이오 핵심 기술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사 아라리스 바이오테크와 에임드 바이오, 생성형 머신러닝에 기반한 단백질 바이오신약 개발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등에 투자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스템임플란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안전관리 체계 확립 노력 인정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2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임플란트연구소 ‘피로실험실’ ▲스캐너연구소 ‘3D프린터실’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 덴탈 업계에

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처음으로 인증 받았다.

해당 인증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걸친 엄격한 심사와 평가가 반영된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규정 및 표준 제정을 비롯해 연구실 안전관리 운영 원칙을 구축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구소 인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 전사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20개 연구소와 160여 개 연구실 전반에서 관리 수준을 향상해 보다 안전한 연구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트윈타워 연구동 로비에서 윤지훈 임플란트연구소장(사진 왼쪽에서부터 세번째)과 김진태 스캐너연구소장(사진 왼쪽에서부터 네번째)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명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세포주 개발 속도 낸다

美 아시모브와 CDMO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둔 아시모브(A SIMOV)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아시모브의 차세대 세포주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주 개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DMO 역량과 트랙 레코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모브는 독자적인 세포주 개발 플랫폼 ‘CHO 엣지(Edge)’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모브의 ‘CHO Edge’ 시스템은, CHO(Chinese Hamster Ovary·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의 유전자 설계 및 최적화를 통해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생산을 가속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작업 과정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적용해 높은 생산성과 균일성을 갖춘 맞춤형 세포주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세경 기자